

디지털 인재, 키우고 뽑고… 저축銀 人력확보 ‘고군분투’

비대면 강화에 인재 영입 잇따라

SBI저축銀, 핀테크TF 인재 영입
웰컴저축銀, 특강 등 내부서 육성
OK저축銀, 디지털역량 확보 초점

저축은행이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비대면 금융 서비스 등 디지털 부문의 역량 강화가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20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이 디지털 분야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새로운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런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별 플랫폼 개발팀을 설립한 후 관리 인력·개발 유지 인력 등의 IT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앞서 SBI저축은행은 이미 500여명에 달하는 전 직원 중 IT인력이 7~8%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디지털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SBI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 15일 서울 구로구 웰컴저축은행 본사에서 진행된 ‘CES 2019를 통해 본 주목해야 할 주요 테크 트렌드’를 직원들이 경청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

핀테크TF 조직을 만들어 우량한 디지털 분야 인재를 영입한 후 다양한 디지털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핀테크 관련 기술을 금융상품에 접목하는 시도와 더불어 빅데이터를 통한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에 주력한 것.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사내 교육도 꾸준히 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 교육 업체와 협력해 핀테크 현안과 관련한 성과와 평가를 공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내 게시판을 통해 직원들과 핀테크 기술에 대한 트렌드도 공유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도 사내 강의를 통해 외부 인재 영입과 더불어 내부 인재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5일 웰컴저축은행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CES 2019를 통해 본 주목해야 할 주요 테크 트렌드’를 주제로 사내 특강을 진행했다. 임원 및 팀장급

을 대상으로 이뤄진 강의를 통해 금융업계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융·복합 구조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적용 가능성 등을 공유했다. 일반 직원 또한 신청을 통해 현장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 강의 동영상도 제공해 언제 어디서나 다시 강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6년부터 IT나 금융기관의 연구소와 협력해 사내 강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며 “강의를 통해 내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최신 디지털 트렌드나 금융서비스와의 융·복합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있어 일반 직원들의 신청률 또한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이와 같은 내부 교육을 2회 진행했으며, 향후에도 20회 정도의 강의 계획이 더 잡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저축은행업권 최초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로아인벤션랩과 함께 온디멘드·답러닝·머신러닝 등 분야의 스타트업 14개사를 선발해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상시 모집 형태로 전환해 지원 의사가 있는 스타트업이 언제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록 했다.

OK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 미래디지털사업본부를 발족하면서 최근까지도 디지털 인력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권 최초로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과 더불어 고객의 생애주기별 상품 매칭 솔루션을 구축했다. 이어 24시간 상담서비스가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챗봇인 ‘오키톡’을 개발했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 업계에서도 고객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의 활용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향후 사내 교육이나 인재 발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디지털 역량을 확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디지털 분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또한 전통적인 금융업무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개발과 더불어 관련 분야의 인력 확충에 더욱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베트남에서 열린 KB국민은행 하노이지점 개점식에서 허인 KB국민은행장(오른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베트남 2호점 ‘하노이지점’ 개점

KB국민은행은 20일 베트남에 ‘하노이지점’을 오픈하고 개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점식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해 김도현 주베트남 한국대사, 응우옌 반 주(Nguyen Van Du) 베트남 중앙은행 은행감독원 원장 및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KB국민은행 하노이지점은 지난 2011년부터 영업 중인 호치민지점에 이은 베트남 내 두 번째 지점이다. 최근 베트남의 개발 및 투자, 한국기업 진출이 집중되고 있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기존에 진출한 KB증권, KB손해보험 등 KB금융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 기반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상미 기자

“韓 노사이사제 도입시 갈등 증폭될 것”

》》 1면 ‘KB이더 기업銀노조도’서 계속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이사제가 노사 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자 이사와 경영진의 의견대립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동이사제가 정착된 독일의 기업인 중 절반 이상은 ‘노조대표의 경영참여는 방해가 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유럽과 달리 노사갈등이 심한 한국의 경우 노사이사제를 도입하면 갈등이 오히려 증폭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준석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상 근로이사제 도입 보고서’를 통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결정해야 할

이사회가 이사간의 발목 잡기 식 토론으로 이어지거나 이사회 진행내용이 노조에 전달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제도가 한국에 도입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독일의 경우 유한회사 형태가 90%다. 은행 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이익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주식회사가 95%로 주주자본주의에 기반한 기업으로 이뤄져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 독일조차도 제도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간 사례가 있었다”며 “지금 이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신한금융, 혁신성장기업에 1.7조 투자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
기업 2만 여 곳 혜택 기대

신한금융그룹은 20일 그룹의 역량을 결집해 기술기반 혁신성장기업을 지원하는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4차산업 관련기업, 사회적기업 등 혁신성장기업에 3~4년 간 1조7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금은 신한금융의 글로벌투자금융(GIB) 부문을 중심으로 각 계열사를 통해 기업과 매칭 방식으로 진행된다. 1조7000억원 규모의 직·간접 투자로 최대 6조원의 투자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당 약 3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면 최대 2만개의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혁신성장 프로젝트는 혁신성장기업을 ‘발굴’과 ‘육성’의 관점으로 분류하고, 해당 기업의 특징에 맞는 맞춤형 투자로 진행된다.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2회 신한퓨처스랩(Future'sLab)을 통한 혁신성장기업 투자 (핀테크 및 농업, 의료 등으로 투자기업 확대) ▲프로젝트 및 블라인드 펀드를 통한 개별 혁신성장기업 투자 ▲정부조성펀드 매칭 투자 ▲신한 BNPP자산운용 블라인드 모(母)펀드 조성 및 투자 ▲신한희망재단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투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한금융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전통

적인 산업구조에서 첨단기술 기반의 혁신성장기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국내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룹 내 미래전략연구소를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그룹 투자프로세스의 밸류체인(Value Chain) 완성 등의 핵심센터로 지정하고, 연구소에서는 투자업무 뿐 아니라 영업, 심사·리스크, 평가·보상 체계의 시장친화적 개선 등 혁신성장을 위한 민간 부문의 프로세스를 다각도로 분석할 예정이다.

조용병 회장은 “혁신성장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신한만의 열망을 나타낸 것”이라며 “2017년 발표한 그룹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사회 프로젝트’와 함께 포용적, 생산적 금융이라는 금융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양대 축을 갖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농협금융지주, 자회사와 그룹 시너지 논의

8곳과 ‘시너지추진협의회’ 진행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NH농협은행 등 8개 자회사와 함께 시너지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농협금융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사업전략부를 신설하면서 자산관리(WM), 기업투자금융(CIB) 등 핵심 사업부문 중심으로 시너지 사업을 재편했다. 이를 통해 기존 시너지 사업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고, 그룹 고객자산 가치와 자산운용 수익 개선 및 향후 미래성장 동력 확충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주요 성과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올해 그룹시너지 추진 계획을 통한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그간 시너지 전략이 각 자회사의 다양한 시너지 사업을 연계, 육성하는 포괄적 전략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시너지영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손병환 사업전략부장은 “지난 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NH멤버스스의 성공적 출범, 소개영업 지원 강화 및 그룹 CIB 경쟁력 강화 등 많은 성과를 이뤘다”며 “올해도 WM 사업방향을 잘 수립해 그룹 WM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협금융은 그룹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의회부터 다양한 실무자모임까지 운영해 계열사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우리카드

1030 게임마니아 위한
‘챔피언스 코리아’ 카드

우리카드는 20일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제작사인 라이엇게임즈와 챔피언스 코리아(CHAMPIONS KOREA) 우리카드(신용·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게임을 즐기는 고객층이 대부분 10~30대 남성임을 감안해 이들이 선호하는 업종을 위주로 혜택을 탑재했다.

‘CHAMPIONS KOREA 우리카드(신용)’는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금액의 최대 1%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홍민영 기자